

Saul Bellow의 대중문화 인식과 수용

-The Dean's December를 중심으로-

박 유 철*

목 차

- I. 서론
- II. 문화와 대중문화
- III. 문화의 ANARCHY
 - (1) REALITY의 부정
 - (2) MASS MEDIA의 폭력
- IV. 초월적 VISION
- V. 결론
- 참고문헌

I. 서 론

산업 혁명이 만들어 낸 수많은 노동 환경들은 사람들을 농촌을 떠나 대도시로 밀려들게 만들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살아왔던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도시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즉 산업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어 가면서 사회적 지위와 계급, 학력, 재산, 성별, 인종, 세대 등의 속성을 바탕으로 하는 커다란 집합체를 만들어 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이러한 이질적 집합체는 '대중'(the mass)이라고 일컬어지며, 이들이 만들어 낸 '대중사

* 본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회'(mass society)와 '대중문화'(mass culture)는 그 자연스런 귀결이 된다.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사회와 그 문화 상황 속에서 기존의 가치와 문화는 형태나 의미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할 수밖에 없다. F.R. Leavis는 이러한 산업 사회에서의 문화의 변질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What we have lost is the organic community with the living culture it embodied... an art of life, a way of living, ordered and patterned, involving social arts, codes of intercourse and a responsive adjustment, growing out of immemorial experienc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rhythm of the year.¹⁾

Leavis는 '살아 있는 문화를 가진 유기적 공동체'에 대한 산업화의 파괴적 효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한 문화적 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산업 사회는 이와 같은 점증하는 파괴적인 대중문화의 일방적 권위에 위압되어 있다. 따라서 어떻게 이같은 '상황을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가' 하는 문제는 관련 분야의 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작가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Bellow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the Great Noise'라는 표현으로 그 심각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By noise I mean not simply the noise of technology, the noise of money or advertising and promotion, the noise of the media, the noise of miseducation, but the terrible excitement and distraction generated by the crisis of modern life.²⁾

산업 사회의 생활은 흥분과 산만한 생활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대중들의 생활은 기존의 문화 체계로는 더 이상 그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게 되고,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흐름에 묻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Bellow는 "예술은 chaos 가운데서 균형을 지닌 것을 획득하는 것과 정신의 혼란 가운데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는 것"³⁾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일상의 삶에서 유리되어 혼자만의 예술 세계에서 탐미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

1) F.R. Leavis & Denys Thompson, *Culture and Environment* (London: Chatto & Windus, 1933), pp.1-2.

2) Saul Bellow, "Starting Out in Chicago," *The American Scholar* 44 (1974), p.77.

3) Gordon Lloyd Harper, "Saul Bellow: An Interview" in *Saul Bellow: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Earl Roivt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Inc., 1975), p.14.

예술과 그를 둘러싼 대중들과의 생활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Bellow는 작품에서 '대중'이나 '대중문화'라는 말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러 문화비평가들에 의해서 '대중문화'라고 정의되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첫 소설 *Dangling Man*(1944)으로 부터 최근의 *The Bellarosa Connection*(1989)에 이르는 그의 작품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그가 특별한 인물의 환상적 체험이나 미학보다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간, 즉 반 영웅(anti-hero)을 작품에 등장시키는 것이나,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를 그 무대로 설정한 것만 보더라도 작가의 '대중'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염려의 정도를 어렵지 않게 파악해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Bellow의 관심이 *The Dean's December* 라는 작품속에서 어떻게 표명되고 수용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문화 비평적 견지에서 현대의 대중 문화의 개념 정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II. 문화와 대중문화

현대 문화에 대한 연구는 Matthew Arnold의 본격적인 문화비평서인 *Culture and Anarchy*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Culture...is the study of perfection...as a harmonious perfection, developing all sides of our humanity; and as a general perfection, developing all parts of our society.⁴⁾

문화는 개개인의 인격을 완성시키고, 사회의 발전을 고무하는 정신적 유산의 근저를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다. 사회와 그 구성원인 개인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개인의 혼란은 바로 사회의 무질서와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문화는 이러한 무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건전한 질서와 권위' (sound order and authority)⁵⁾의 역할을 하게 된다.

Arnold의 문화 연구의 주된 관심은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elite 문화에 대한 복종과 종속을 통해 획득된 사회적 질서와 권위에 있다. 따라서 그는 대중문화 그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오히려 그의 저술에서 대중문화가 정치적 anarchy의 징후라는 사실 외에는

4) Matthew Arnold, *Culture and Anarchy*, ed., J. Dover Wilson(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p.6.

5) Arnold, p.12.

언급한 것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 대중의 문화는 사회적, 문화적 무질서와 쇠퇴, 즉 사회적, 문화적 권위가 붕괴한 증거로만 의미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⁶⁾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는, Arnold 이후 반세기가 지난 다음인, 1930년대에 F.R. Leavis가 문화에 대한 몇몇 작품들을 출판함으로써 본격화하였다. Leavis는 20세기에 조절할 수 없는 변화에 의해서 야기된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문화는 Arnold 보다 더욱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⁷⁾ 그는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 이후에 문화는 두 개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하나는 소수의 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의 문화이다. 소수 문화는 ‘사고와 표현의 정수’로 교육받은 소수의 문화임에 반해, 대중문화는 교육받지 않은 다수의 상업 문화이다. 그래서 그는 “문화는 똑같은 사회적, 전통적 가치를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체로 전달되는 생활 방식이다. 따라서 문화는 그들이 다른 그룹과는 다르게 구별되는 존재 의식을 가지게 해준다.”⁸⁾라고 말함으로써 분명히 서로 다른 문화 수혜자들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그의 문화 분류는 Arnold가 역사적으로 항상 “문화적 기반이 약한 대다수의 도덕적 실패”로 인해 사회가 파괴되었다고 하는 주장이나, “대중 교육받은 존재가 아닌, 고도로 교육받은 소수가 항상 인류의 지식과 진실의 역할을 해 왔다”⁹⁾라는 표현들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Arnold와 Leavis의 이와 같은 이분법적 문화 분류는 ‘우월한 문화’와 ‘열등한 문화’의 명확한 대비 보다는, 산업화 시대의 굴절된 문화 현상을 지적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Leavis는 이어서 현대 대중문화가 대단히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⁰⁾ 그는 문화를 이러한 위기 상황으로 몰고가는 여러 요인을 논하면서 mass media의 강력한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신문이나 잡지가 그 양적 증가로 인해 대중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 그러나 Leavis는 신문이나 잡지보다 대중들의 정서에 가장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화’라고 보았다. 영화는 대중들의 주요 recreation일 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수동적이고 “최면적 수용”(hypnotic receptivity)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보다 잠재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영화는 “표준화된 문명이 전세계로 급속하게 퍼져 나가게 하는 주된 요소가 된다”¹¹⁾는 극단적 표현을 하기도 한다.

6) Arnold, p.78.

7) F.R. Leavis, “Mass Civilization and Minority Culture,” *Education and University* (London: Chatto & Windus, 1943), p.3.

8) Leavis, p.143-5.

9) Arnold, p.67.

10) Leavis, p.145.

11) Leavis, p.169.

Dwight Macdonald도 이같은 대중문화의 수동화, 획일화, 수평화의 효과에 대해 의견을 같이한다. 대중문화 제작자들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문화 상품은 그 제작의 초점이 철학적 사고나 심미적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상의 일탈에 그 초점을 둔다. 즉, 단순히 상업적 목적을 위해 소위 '기술자'들에 의해서 시장에 내놓기 위해 대량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기준(standards)에 무관심하고, 차별적 사고를 요하는 직접적이거나 복잡한 사고에 거부감을 느끼는 대중은 대량으로 밀려드는 문화 상품의 위력적이고 일방적인 힘에 쉽게 굴복하게 된다. Macdonald는 이러한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 Built-In Reaction spares effort, provides him with a shortcut to the pleasures of art that detour what is necessarily difficult in the genuine art because it includes the spectator's reactions in the work itself instead of forcing him to make his own responses.¹²⁾

대중은 진정한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게 하는 '내재적 반응'(the Built-In Reaction)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의 의사를 유보하는 그러한 사회에서 대중은 "외로운 군중"(the Lonely Crowd)들을 구성하는 고독한 하나의 원자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전혀 타인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떤 비개성적이고 추상적이며 구체화된 요소"¹³⁾일 뿐이다. Macdonald는 대중들을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여 자기 확인(self-identification)과 개별성(individuality)을 가지도록 도와야 하며, 그것은 예술가의 몫이라고 말한다.

The simplest way of bridging this distance, or rather of pretending to bridge it, is by emphasizing the personal-ity of the artist.¹⁴⁾

문화 상품 제작자들의 인격이 중요하다는 말이 된다. 이는 문화 상품 제작자들의 관심이 그들이 만들어 내는 상품의 질이나 대중에게 미칠 영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얼마나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José Ortega Y Gasset는 유기적 공동체 사회에서 대중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따른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1930년에 출판되어서 1932년에 영어로 번역된 *The Revolt of the Masses*에서 Gasset

12) Dwight Macdonald, *Against the American Grain* (New York: Vintage Books, 1952), p.29.

13) Macdonald, p.25.

14) Macdonald, p.25.

는 산업혁명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으며, 과거에는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소수 귀족의 지도력을 따랐던 대중이 이제는 사회의 제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소수들의 자리를 넘보면서 실질적인 하나의 세력으로 부상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Gasset는 이 대중을 노동자들도 아니고, 사회의 어떤 계층에도 속하지 않지만, 모든 사회계층에서 찾아볼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는 ‘대중’을 어떤 특정한 배경—善이건 惡이건—그 자체에는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않지만, 자신이 모든 사람과 꼭 같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특성에 덧붙여서 “대중은 색다르고, 뛰어난, 개별적이고 자질 있고 정선된 모든 것들을 자기 밑에서 눌러 부셔 버린다”(the mass crushes beneath it everything that is different, everything that is excellent, individual, qualified and select)¹⁵⁾라고 서술함으로써 대중의 독단적 권위 의식을 설명한다. 대중은 스스로를 ‘the lord of things’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우월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규칙들을 만들어 내려 한다. 그래서 Gasset는 이들 대중은 “응석받이 아이의 심리”(spoilt child)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To spoil means to put no limit on caprice, to give one the impression that everything is permitted to him and that he has no obligations. The young child exposed to this regime has no experience of its own limits. By reason of the removal of all external restraint, all clashing with other things, he comes actually to believe that he is the only one that exists, and gets used to not considering others, especially not considering them as superior to himself.¹⁶⁾

Gasset는 Arnold와 마찬가지로 기준(standard)의 중요성과 ‘anarchy’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활 습관을 자신의 행동과 사고의 합리화로 이용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우월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대중들의 자기중심주의에 관한 이러한 성향은 앞으로 작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 지식인들 사이에 대중문화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는데, 그것은 주로 ‘미국 문화로서의 대중문화’에 관한 것이었다. Andrew Ross는 ‘mass’란 말을 “미국적 또는 비미국적의 공식적 차이를 뚜렷이 하는 주요 용어 중의 하나”¹⁷⁾로 표현함으로써

15) José Ortega Y Gasset, *The Revolt of the Masses* (New York: Norton & Company, 1932), p.120.

16) Gasset, p.64.

17) Andrew Ross, *No Respect: Intellectuals And Popular Culture* (London: Routledge, 1989), p.7.

대중문화를 미국 문화의 특성적 문화 형태로 보고 있다. 반면에 Bernald Rosenberg는 미국 사회의 물질적 풍요와 복지가 대중문화의 비인간적 영향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최악의 경우 대중문화는 우리의 취향을 백치화할 뿐 아니라 감각까지 파괴하여 전체주의의 길로 나가게 할 것”¹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미국 고유의 것이 아니며 또 미국 민주주의에 반드시 수반되는 문화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대중문화를 만들어 낸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기술의 발달이므로 미국의 대중문화 발생이나 존속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Dwight Macdonald 역시 미국을 대중문화의 국가라는 주장을 부인하며, “소련이 미국보다도 더 대중문화의 나라”라고 주장한다. 획일화, 수평화, 수동화의 경향을 나타내는 대중문화가 군중들의 문화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중문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미국 보다 그 질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이다.¹⁹⁾ 그 질적 수준이 어떠한 Macdonald는 대중문화 자체에 대해 지극히 비판적이다. 그는 “대중문화가 나아지기를 바라기는 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행운”²⁰⁾이라고 말할 만큼 극단적이다. 또 대중문화(그는 masscult라고 부른다)를 “고급 문화의 서투른 모방... 실패한 예술도 아니며, 비예술이다. 심지어는 반예술이다”(a parody of High culture... It is not just unsuccessful art. It is non-art. It is even anti-culture)²¹⁾라고 평가절하 시키기도 한다.

‘대중문화’(mass culture)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순수 예술 또는 고급 문화와 비교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산업화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문화의 부정적 측면, 즉 대량적, 상업적, 물질적인 특성을 띠는 것으로, 그리고 ‘대중’(the mass)은 수동적, 획일적, 무비판적인, 독단적, 수평적 등의 성향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파악된다. 그리고 미국적인 문화의 특성을 지칭하기도 하는 용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문화에 대한 문화 비평가들의 비판의 강도가 어떠한가, 또 대중문화의 특징적 현상들이 미국에서 시작되었는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미국만의 문화적 특성인가 하는 것은 문제의 초점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비평가들이 대중문화라고 정의하는 양상들이 전후 미국 사회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이에 따른 정신적 무질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18) Bernard Rosenberg, “Mass Culture in America,” *Mass Culture: the popular arts in America*, ed. Bernard Rosenberg & David Manning White (New York: Macmillan, 1957), p.9.

19) Dwight Macdonald, “A Theory of Mass Culture,” *Mass Culture*, p.60.

20) Macdonald, p.72.

21) Macdonald, *Against the American Grain*, p.4.

III. 문화의 ANARCHY

현대 산업사회에 대한 상황인식에 있어서 문화비평가들과 Bellow의 견해는 동일 선상에 있다. 현대 사회의 대중은 그 의식이나 행동 양식에 있어 분명히 위기 상황, 즉 'anarchy'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중문화'라는 하나의 의식 또는 생활 형태로 나타난다.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한 기존 가족 관계의 해체와 그 역할의 축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도시 환경, 기존의 부재로 인한 광기에 가까운 성의 문란, 그리고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mass media, 이 media에 길들여져 점차 정형화, 획일화, 수동화 되어 가는 대중들, 그리고 이에 편승하여 개인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속물적 지식인들,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Bellow가 작품을 통해 진단하고 비판하여, 나름의 방법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현실의 삶, 즉 '대중'과 '대중문화'의 모습인 것이다. The Dean's December(1982)는 Bellow의 작품을 통틀어 위에서 언급한 미국 문화의 여러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동시에 가장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다. Bellow는 동시대 문화의 상황을 거대 도시에 사는 대중들의 자기 부정과 그에 따른 비인간화, 그리고 속물적 지식인(philistine intellectual)의 성공과 이를 도와주는 mass media의 폭력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1) REALITY의 부정

The Dean's December의 주인공 Albert Corde 교수는 원래 부유한 집안 출신의 journalist였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한때 급진적 방향으로 쏠린 적이 있으나, 22살때 G.I.로서 Potsdam 선언에 모인 세계 정계의 거물 Stalin과 Churchill에 관해서 취재한 보고가 New Yorker에 공개되자 일약 journalist계에서 유명해 졌으며, 이후 그는 Paris의 Herald Tribune에서 활약하다가 40년대 중반에 journalist계를 떠나 Chicago로 귀향하여 상아탑인 대학의 journalist학과 교수로서 강의도 하고, 또 학생과장직도 맡고 있었다.

Corde는 journalist 출신의 지식인이니 만큼 Chicago의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을 수 없었다. 그는 Chicago 사회의 재건을 위한 Chicago의 유지들의 모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저명한 변호사, 건축가, 실업가, 선전자, TV해설가, 음악가, 예술 관계자들, 기자, 출판사 사장, 도시 문제 연구가 등 50여명의 유명 인사들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욱 자극적이고 dynamic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토의가 있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Paris나 Venice처럼 옥외에 Cafés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San Francisco의 Ghirardelli Square처럼, 혹은 Boston의 Faneuil Hall과 같이 shopping center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Hancock

Building의 옥외에 casino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해안을 아름답게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Chicago에 실존하는 악을 시인하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한 발언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D p.202)

이처럼 모든 시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유지들이 의식적으로 사회악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Corde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해악적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 사회를 재구성하여 마음 편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재창조하는데 일조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된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몇가지 사건들, 즉 Mitchell의 살인사건, Lichy Lester 살해 사건, 그리고 Ridpath의 scandal 등, Chicago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예로 들어 Harper誌에 논문을 발표했다. 우선 Mitchell의 살인사건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다.

Mitchell은 대학에서 운동선수 생활도 한 적이 있는 흑인으로, 강간 용의자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가석방되었다. 가석방되던 날 오후 3시경에 Loop (Chicago의 주요한 상업지구)에 차를 세우고 나서, 마침 그때 근처 공터에 차를 주차하려는 젊은 Sathers 부인에게 접근하여 권총을 들이대고 그의 차 속으로 그녀를 밀어넣었다. 그녀를 앞 좌석에 앉힌 뒤, 먼 뒷길로 차를 몰고 가서 폭행하고서 그녀를 자동차 trunk속에 쳐넣어 두었다가, 밤이 되자 그녀를 끌어내어 다시 강간하고서는 motel에 투숙한 뒤, 다음날 아침 그녀를 차 trunk에 쳐 넣어둔 채로 10시경에 자기의 피의사항에 대한 심의를 받기 위해서 재판소에 출두했다. 다음날 아침 오전 5시경 Mitchell은 Sathers 부인에게 경찰에 통보하지 말라는 협박과 함께 그녀를 풀어 주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백인가의 여러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울렸지만, 그 어느 집도 그녀를 집안으로 맞아 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그녀가 닫힌 현관문 앞에서 뒤돌아 나올 때, 근처에 있던 Mitchell이 다시 접근하여 그녀를 붙잡아 차안에 넣은 뒤, 인적이 없는 근처의 공지에 데리고 머리에 총을 쏘아 죽이고 그 시체는 쓰레기 등으로 덮어 버렸다. Mitchell은 곧 체포되어 형무소에 다시 수감되었다.(D p.193)

Mitchell이 그녀를 죽이기 전에 수차례에 걸친 폭행과 감금으로 그녀에게 입힌 감정적, 심리적 충격은 미국 사회에서 흑백간의 무관심과 거리감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를 잘 보여준다. Mitchell의 백인 변호사가 그의 의뢰인에게 나타내는 감정적인 거부에서도 미국 백인들의 사회적, 인종적 위기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과 자기중심적 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들은 이러한 범죄가 mass culture에 의해 야기된 방향감각의 상실과 혼돈에서 비롯된 것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주위의 상황을 애써 부정하려는 자기 중심적 사회 의식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Corde 자신이 재직하는 대학의 대학원생 Lester가 살해된 사건으로 학생과장으로서는 그는 진상을 구명하기 위해서도 깊이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더운 8월의 새벽녘에 Lester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 3층에서 Lester가 시멘트 도로로 떨어져 죽었다는 급보를 받고 Corde는 우선 시체 검중에 입회했다. 경찰의 말에 의하면 Lester는 저녁 무렵 아내 Lydia와 함께 downtown으로 나갔다가 아파트로 돌아온 뒤, 새벽 2시경에 Lester 혼자서 다시 downtown의 술집으로 가서 술에 취해 정신없이 날뛰다가 흑인들을 데리고 귀가했는데, 그후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시신의 얼굴을 본 Corde는 깊은 느낌을 받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Rick Lester's face had the subtracted look of the just dead. He had crashed through the Window of his own third-floor apartment, and his skull was broken on the cement. His longish hair was damp(with blood?) and hung backwards.

The expression on Rick Lester's face suggested that he would have given up this sort of caper if he had lived. The folds of his mouth, his settled chin gave him a long white mature look of dignity. More adult, more horsey, a different kind of human being altogether. Corde was inclined to think that his hurry-up death had taught him something. Since he had been subtracted once and for all from the active human sum, you could only try to guess when that lesson had been given. Illumination while falling? A ten-second review of his life?²²⁾

Corde는 인생경험이 적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죽음이 그렇게 통절하게 느껴진 적은 과거에 없었다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이 무모하고 비참한 죽음을 야기시킨 범인을 꼭 잡아주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범인수색은 진전이 없었으므로 그는 경찰의 권유도 있고, 또 교무과장의 합의도 얻어내어 범인을 찾는데 협력해 주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다고 공표했다. 24시간이 채 못되어 증인이 나타나고 두 흑인 용의자도 체포되었다. 그 중 한 사람은 Lucas Ebry라는 접시닻이를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Riggie Hines라는 전과가 있는 흑인 매춘부였다. 따라서 이 두 흑인은 Solokin 판사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이 사건이 공표되자 대학생들의 반응도 빨랐다. Corde의 조카인 Mason을 포함한 급진파학생들은 대학당국이 흑인에 대해서 싸움을 걸고 있으며 학생과장인 Corde는 검찰당국과 공모하고 대학의 권력을 이용하여 흑인 Ebry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학생신문

22) Saul Bellow, *The Dean's December*(New York: Pocket Books, 1983), pp.30-31.[이후 작품의 인용은 'D p.'로 표기함]

에 신고, 동시에 고소 반대운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Mason이 앞장서서 책략의 명수인 변호사 Detillon에게 변호를 맡겼다. 이들은 Corde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건에 간섭한 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But Uncle Albert was not the worldly one, either. Max and Mason were both agreed that he, Corde, wasn't really with it, didn't know the score at all, and that he deserved to be penalized for meddling, for interfering with reality as the great majority of Americans experienced it—to which that majority actually sacrificed itself. As if everybody were saying, "This is life, this is what I give myself to. There is no other real. No holding back, go with the rest." Then a man like Corde came haunting around....

Uncle Albert was flirting with a delusive philosophy and trying to have an affair with nonexistent virtues Mason's statement would have been. "Uncle, you're unreal, you're out of it." (D p.78)

그러나 자신의 친구인 혹은 살인자를 위해 열성적인 역할을 하는데 있어 Mason은 어떤 ideology가 없다. 다만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거부감을 느끼고, 무언가 자극적인 것을 찾아서 여기 저기 옮겨 다니다가 이 사건에 개입한 것 뿐이다. 그리고 재판의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자 더욱 더 '혁명적인' 소일거리를 찾아 남아메리카로 가버린다. Corde는 조카 Mason의 이러한 집착은 사라져 버린 전통과 가치의 빈 공간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배우고 따라야 할 "원형적인 기준"(archetypal canon) (D p.201)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에 충실할 수 없는 것이다. Mason 역시 내적 기준과 질서가 없다. 그는 어떤 가치체계에 대해서 훈련을 받은 적도, 관심을 둔 적도 없기 때문에, 그는 대중사회(mass society)의 흐름위에서 그저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 혐오와 현실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은이 사회의 흐름을 한층 악화시킬 뿐이다.

세번째로 Corde 교수가 개입한 사건은 전 형무소 소장이었던 혹은 Ridpath의사건이었다. 신문들은 Ridpath 소장이 죄수들을 구타하고 학대했다는 이유로 신문 전면에서 괴기하게 close-up된 사진을 신고 그를 매도했으며, 소장직을 물러나게 한것은 물론, 재판에 회부시켜 놓고 있었다. Corde는 이 사건이 무언가 잘못되어 간다는 직감으로 Ridpath 재판에 남다른 관심을 쏟는다. Ridpath의 변호사 Wolf Quitman과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Ridpath와 직업상 관련이 있는 사람들과 면담도 했다. 이 과정에서 Corde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형무소내의 죄수들 중에는 boss들이 있고, 감옥내의 모든 일들은 이 boss 들의 통제하에 있으

며, 구타, 마약, 암거래(rackets), homosexual의 강간, 무기의 은닉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공공연한 비밀을 누구하나 함부로 손댈 수 없었으며, 초빙된 범죄학 교수들도 그 문제를 언급하기를 회피했다. 그런데 형무소 소장 Ridpath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해낸 것이다. 그는 하루 16시간 충실히 근무하면서, 옥내에서의 자살과 살인을 감소 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암거래, 구타, 자살, 고문 또는 계간 등을 통제하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이런 최선의 행위가 정치가들에게는 별로 감명을 주지 못했다. 그들은 Ridpath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야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Ridpath는 형무소에 책정된 막대한 예산을 형무소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나 청부업자의 권고를 받아들여 착복하거나 담합하지 않고, 예산을 절약하고, 남은 돈은 당국에 반납했다. 이런 그의 행위를 그의 정치적 야심으로 보는 반대자들에게는 당연히 견제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D p.154)

Bellow는 오늘날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의 결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바 있다.

I just could no longer stand the fact that the city and the country were in decay under our very eyes and people would not talk about the facts. They might talk about money to change things, but never about what was actually happening. No one levels any more. So it was a cry. But I don't know whether anyone heard it.²³⁾

위선자들과 편협한 아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자신과 같은 사고와 행동을 하지 않는 Ridpath와 같은 사람들을 매도함으로써, 이 대중사회의 지식인과 정치가, 그리고 언론은 스스로 자신들의 무능력과 무력함을 드러낸 셈이다.

미국의 백인 중류층—La Salle Street businessmen, politicians, and lawyers—은 Chicago의 현실로부터 떨어져 있다. 부와 안락감속에서, 그들은 Chicago의 ghetto의 사람들과 높은 벽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리고 서로 자신들의 현실적 이익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음으로서, 그 거리는 점점 더 떨어져 갈 뿐이다. ghetto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 밖에 사는 사람들이나, 진짜 ghetto는 서로의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하고 있는 것이다.

It was not so much the inner city slum that threatened us as the slum of inner being.(D p.201)

23) D.J.R. Bruckner, "A Candid Talk with Saul Bellow," *New York Times Magazine* 15 April, 1984, p.52.

따라서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들에게 속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해 버리는 그들은, 자기와 무관하고 이익에 배치된다면 그것이 아무리 참모습일지라도 기꺼이 눈을 가려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2) MASS MEDIA의 폭력

Bellow는 한 interview에서 여론을 이끄는 mass media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he problem... is that people are trained in superficiality. That television is the culture of the country only aggravates this. It is impossible for people to have true experience in this environment. There is a taboo against earnest work.²⁴⁾

Corde는 바로 이런 언론의 위압적이고 강력한 힘에 의해 패배당하는 인물이다. Chicago를 사랑하는 뜻에서, 그리고 사회의 정화에 일조를 하고자 썼던 그 논문에서 Corde는 언론이나 보안관 등에 대한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말이나 기사에 대해서 일반 독자들의 반응을 고려할 여지도 없었다. 따라서 그의 기사중에는 시민들에 대해서 ‘잉여인구’(superfluous population), ‘거세된’(written off), ‘운명지워진 사람들’(doomed people) 등의 표현이 자주 나타났는데 그런 표현이 문제가 되었다.(D p.192) 특히 Corde가 반이나 파괴된 도시의 황량하고 추악한 배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완만한 죽음과 돌연한 죽음, 마멸(attrition)과 급속한 파멸 중에서 어느 한 쪽이라고 언급했을 때 대부분의 독자들은 불쾌감과 분노를 금치 못했던 것이다.

Corde교수는 Harper지에 실은 기사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자기 몰락 행위에 돌입한 셈이다. 그는 상아의 탐, 그가 좋아하는 철학과 예술의 연구의 터전에서 나와서 적을 만들고 신문과 독자를 노하게 했다. 그러나 Corde는 도덕의 제 1의 행위는 현실을 되돌리는 것,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파헤쳐 예술이 묘출하는 것처럼 그것을 새롭게 나타나는 것(to disinter the reality, retrieve reality, dig it out from the trash, represent it anew as art would represent it)(D p.123)이란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인류의 일체의 사악, 질병 그리고 추악함의 박물관같은 상태에 방치되어 있는 인간의 의식을 철저히 정화(D p.137)해 나가는 것이 예술가의 할 일이며, 현대인으로 하여금 자주성을 상실하지 않게 하고, 마약의 매혹이나 자석 같은 TV의 위력, 그리고 성의 흥분이나 파괴의 쾌감과 같은 감정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Corde는 확신하고 있었다.

24) Eugene Kennedy, "A Different Saul Bellow," *Boston Globe Magazine*, Jan.10 1982, p.12.

그러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기사 그 자체에만 몰두하는 많은 독자들은 물론, 소위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Corde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의 불리한 입장을 이용하고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대중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사람들까지 생겨난다. 이러한 지식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Corde의 고등학교 동창인 Dewey Spangler이다.

Spangler는 Corde가 쓴 기사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column을 썼다. 그가 쓴 column의 서두에는 비교적 간단하게 고등학교 시절과 Corde의 약력을 소개한 후, 최근에 Corde가 쓴 기사는 많은 독자에게 당혹감과 불안감을 야기시켰다고 언급한다.

“As personal idiosyncrasy this warranted no objection, but not long ago Dean Corde went public and wrote two mystifying articles about the City of Chicago, puzzling and disturbing many readers.”(D p.331)

Spangler는 계속해서 Corde가 25년동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즉 전쟁, terrorism, 대량학살, 권력의 변동 등을 취재해온 기자 출신이지만, 세계변동의 함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또 Corde가 원래 미묘한 몽상적 인물이기 때문에 journalist를 그만두고 학교로 피신했지만, 상아탑에만 머무르기에는 그가 너무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다시 예전의 기질을 발휘해서 엄청난 범죄 사실을 폭로하였지만 극히 정서적이고 개인적인 관찰자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고 지적한다.

“This was predictable in a personality of so rare a type, appalled by the transformation of his native city. For Corde is attached to Chicago by strong feelings and the physical and human destruction he describes in Harper’s fills him with pain. As a fellow Chicagoan and an old friend I can testify to this.(D p.333)

Spangler는 Corde가 journalism과 mass media에 대해서 냉철히 따지면서, “mass media가 도덕적, 정서적 그리고 인간의 진실한 상황을 취급하는데 소홀히 하고, 그 거대한 힘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된 생활에로의 접근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모름지기 대학인은 대중을 지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식인들도 사회의 중요한 어려운 문제들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반격을 한다.

“But if the Dean is hard on the media he is even more bitter about the academics. The media are part of corporate America. They are part of the problem, hence their ‘impartiality’ is meaningless. But the universities are a deep disappointment to him. I gather from his conversation that he thinks academics are not different from other Americans, they are dominated by the same consensus and ruled by public opinion. They were not set apart, with all their privileges, to be like everybody else but to be different. If they could not accept difference they could not make the contribution to culture that society needed. (D p.334)

언론 기관 역시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며, 다른 집단과 차이를 두고 있는 대학이 여론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현실인식은 대다수의 그의 동료교수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Dean Corde must have offended his colleagues deeply. They should have been irradiating American society with humanistic culture, and in the Dean’s book they are failures and phonies. That’s what his articles reveal. I wonder whether my dear old friend realizes this. I am not sure that he has a good idea of what they were up against the magnitude of the challenge facing them.” (D p.302)

요컨대, Spangler의 Corde에 대한 평은 한마디로 Corde가 사회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Corde의 기사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등에 업고 그 여론을 부추기는 column을 써서 그 흐름에 영합해 가는 Spangler는 Herzog에서 Gersbach와 같은 부류의 “publicity intellectual”의 대명사인 셈이다. Corde 자신도 자신의 지식, 언론을 통해서, 대중적 인기를 위해 악용하는 이 속물적 지식인과의 싸움에서 자기가 패배한 사실을 인정한다.(D p.337) “병적 광란과 오도를 낳는”(D p.301) mass media의 실체를 새삼 확인한 셈이다. Bellow는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 언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The problem ...is that people are trained in super-ficiality. That television is the culture of the country only aggravates this. It is impossible for people to have true experience in this environment. There is a taboo against earnest work.²⁵⁾

25) Kennedy, p.12.

진지한 논의와 경험은 TV에서는 금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릇된 문화를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진정한 지식인이 패배당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사회를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Bellow의 작품중에서 *The Dean's December*가 가장 낙담적인 작품이다. 도시의 혼란상, 무분별한 폭력, 그 환경으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인간관계의 해체 등의 근원은 전반적인 문화의 파행에 있다. 현재의 미국문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관련성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부속되지 못하는 대중들은 이리저리 흘러다닐 수밖에 없다. 비록 Corde가 "that he might, at last, be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D p.32)라는 신념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미국문화의 현 상황이 이 희망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된다. Corde의 패배는 한 사람의 양식있는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실감하게 해준다. 진지한 의식이 패배한다는 사실은 여론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Spangler와 같은 속물적 지식인의 전횡만큼이나 심각한 문화의 위기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IV. 초월적 VISION

Corde는 병원에서의 전화로 Valeria가 죽었다는 전갈을 받고 아내 Minna와 함께 달려와서 장모의 죽은 얼굴을 봤을 때 Corde는 이러한 감회를 느꼈다.

Valeria was certainly dead. She had died, and she was dead, and last arrangements were being made. But he couldn't say that she was dead to him. It wouldn't have been an accurate statement. One might call this a comforting illusion, a common form of weakness, but in fact there was nothing at all comforting about it, he could take no comfort in it. Nor was it anything resembling an illusion. It was more like an internal fact of which he became conscious. He hadn't been looking for it. And he was not prompted to find a "rational" cause for this. Rationality of this sort left him cold. He owed it nothing. It was particularity that interested him. (D p.195)

이처럼 Valeria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지만 Corde의 마음에는 그녀가 죽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환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생자와 생자 뿐만 아니라 생자와 사자도 영혼을 서로 영교할 수 있다는 깊은 직관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았다.

Corde의 이러한 느낌을 학생과장을 사임한 후 집 현관에서 다시 경험한다. Corde는 스스로 만든 trouble의 씨, 즉 그 기사에 관한 Spangler의 비난에 찬 논평에 대해서 그의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또 Corde는 Spangler의 논문이 원인이 되어 학생과장직을 사임하게 되었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마음은 자유롭고 평화로웠다.

At home he set a kitchen chair out on the porch. It was mild enough to sit there, on the lee side of the flat. The light was the light of warm seasons, not of deep winter. It came up from his own harmonies as well as down from above. The lake was steady, nothing but windless water before him... Besides, he presently felt himself being carried over the water and into the distant colors ...,he passed through them, very close to the borders of sense, as if he could do perfectly well without the help of his eyes, seeing what you didn't need human organs to see but experiencing as freedom and also as joy what the mortal person, seated there in his coat and glove otherwise recorded as colors, spaces, weights. This was different. It was like being poured out to the horizon, like a great expansion. What if death should be like this, the soul finding an exit. The porch rail was his figure for the hither side. The rest, beyond it, drew you constantly as the completion of your reality. (D p.321)

Corde는 현관에 앉아서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그 빛은 위쪽에서 내려 비출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내부에서도 솟아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는 자신의 몸이 물위를 날아서 아득한 색채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시각의 도움없이 사물을 볼 수 있고, 공간, 무게, 색채를 자유와 기쁨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 현관 난간을 경계로 저쪽은 피안의 세계, 즉 영(靈)의 출구 같아 보였다. 난간 저쪽은 인간의 實在을 완성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인간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컨대, Corde는 Valeria의 죽음을 계기로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결과 자아중심적 의식, 즉 아집을 버림으로써 소모적인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 Spangler에 대한 용서도 바로 이러한 초월적 의식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가 아내 Minna와 함께 Palomar 천문대에 올라갔을 때에도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무한의 실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것을 느끼며 한없이 만족한다.

This Mount Palomar coldness was not to be compared to the cold of the death house. Here the living heavens looked as if they would take you in. Another sort of rehearsal, thought Corde. The sky was tense with stars, but not so tense as he was, in his breast. Everything overhead was in

equilibrium, kept in place by mutual tensions. What was it that his tensions kept in place?

And what he saw with his eyes was not even the real heavens. No, only white marks, bright vibrations, clouds of sky roe, tokens of the real thing, only as much as could be taken in through the distortions of the atmosphere. Through these distortions you saw objects, forms, partial realities. The rest was to be felt. And it wasn't only that you felt, but that you were drawn to feel and to penetrate further, as if you were being informed that what was spread over you had to do with your existence, down to the very blood and the crystal forms inside your bones. Rocks, trees, animals, men and women, these also drew you to penetrate further, under the distortions (comparable to the atmospheric ones, shadows within shadows), to find their real being with your own. This was the sense in which you were drawn.(D p.345)

이처럼 Corde가 보고 있는 천공은 현실의 천공같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객체를, 현상을, 그리고 부분적 현실을 볼뿐이며 나머지 부분은 결국 감지해 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마치 머리 위에 무한히 펼쳐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피 그 자체, 뿔속의 수정(水晶) 형태에 이르기까지, 돌, 나무, 동물, 남과 여, 이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것들의 참된 존재도 우리 자신의 존재와 일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Corde의 이같은 의식의 전환은 현실세계에의 집착보다 초월을 의미한다. 현실은 더 이상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닌 셈이다. 현실을 넘어서 절대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감각을 인지함으로써 현재의 정신적 혼란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하는 Corde의 이같은 현실 대응은 일견 도피행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이 Bellow의 미국 문화에 대한 작품중 가장 비판적인 작품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긍정적 'moralist'로서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모범형이 되고 "도덕적 표상을 나타내는" (stand out in moral statue)²⁶⁾ 두 사람의 흑인에 관한 묘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한사람은 County Jail의 감독인 Rufus Ridpath으로, 감옥안에서 교정체계의 변화를 위해서 무척 노력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의 명예와 직업을 잃고 만다. 또 한 사람은 마약 중독자 였다가 스스로 완전히 이겨 낸 Toby Winthrop이다. 그는 중독자들을 위해서 재활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 두사람을 통해 Corde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아닌 개개인의 진정한 노력으로 이 사회는 차별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인 것이다.

26) Kennedy, p.50.

Bellow는 Chicago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한 Chicagoan으로써, 가치체계가 붕괴위기에 있고, 인간의 가치는 작아질 때로 작아져 있는, 그리고 정신의 안정성을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같은 이 도시에 대한 자신의 의도를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I want write a book about Chicago, and I went out to look at the town again. This new inspection didn't inspire humor. The facts were dreadful. What were my thematic concerns, you ask? One of my themes is the American denial of reality, our devices for evading it, our refusal to face what is all too obvious and palpable. The book is filled with protest against that evasion, against the techniques of illusion and the submission to taboos by means of which this is accomplished. Corde thinks that we are becoming wraiths, spooks. It seems to him that we have lost all capacity for dealing with experience—no capacity to think about it, no language for it, no real words.²⁷⁾

Corde는 자신의 고향을 고쳐야 할 것이 많은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그 도시의 문화적 상황에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그가 바라보는 거의 모든 곳에서 위기의식은 실제적으로 그리고 급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미국문화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비록 경미해 보이기 는 하지만, 최소한 그들이 영위해 가는 삶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사람이 그래도 이 사회에 존재한다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현실직시의 회피, 자기파괴를 유도하는 무분별한 폭력, mass media의 부정적 위력,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 등,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전반적인 대중문화의 실패에 있다. 이제 대중문화는 그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애정을 가지는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 자기중심적 아집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보다 포괄적인 식별력을 개발해 나가는 개인의 노력이 있는 한, 그 정신적 안정으로의 회귀는 희망이 있는 것이다.

VI. 결론

현대의 대중문화적 상황과 그 위기감에 대해 언급한 작가들은 현대 미국 문학사에서 일일이 지적하기 힘들 만큼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 Bellow 만큼 격찬과 혹평이 교차되는 작가도 드물

27) Matthew C. Roudané, "A Cri de Coeur: The Inner Reality of Saul Bellow's *The Dean's December*," *Studies in The Humanities* 11-2 Dec. 1984, p.270.

것이다. Alfred 같은 작가는 Bellow를 “자신과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는 철두철미한 소설가이며 이야기꾼”²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Jack Ludwig는 Bellow를 “가장 지적인 작가”²⁹⁾라고 극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유대적 전통에 무지하다는 혹평을 받는다 하면, Fiedler 같은 비평가는 그를 ‘변절자’라고 악평하기까지 한다.

Bellow에 대한 혹평은 크게 두가지 점에 기인한다. 첫 번째는 Bellow가 20세기 후반기의 세계 문학의 관심, 즉 소외, 절망, 허무, 종말론적 관심에 정통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 즉 modernism 작가들과 최종적으로 동조하기를 거부하고 죽음보다는 삶을 긍정하는 작가였고, 두 번째는 소외의 역사와 그로 인한 갈등을 직접 체험한 한사람의 유대인으로써, 정통 유대교적인 의식을 작품에 강도있게 표현하지 않는데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 못지 않게 modernism을 이해하면서도 이와 결별하려고 노력하며, 동시대의 어느 작가보다도 유대적 또는 Yiddish 문화에 정통하고 있으면서도 그 편협성을 초월하려는 작가이기 때문이다.³⁰⁾

Bellow에게 있어 미국의 대중과 그들의 문화는 지극히 위험한 수위에 있다. 그는 이러한 주목할 만한 현상들을 많은 강연과 지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의 Nobel상 수상 연설에서도, 모든 것이 와해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개인에게 ‘문화’라고 하는 적절한 힘은 이제 더 이상 ‘the Great Noise’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주는 방패가 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we stand open to all anxieties. The decline and fall of everything is our daily dread; we are agitated in private life and tormented by public questions.”³¹⁾

Bellow가 사는 이 시대의 대중문화는 분명 혼란과 위기 상황, 즉 ‘the violent uproar’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Bellow는 전적으로 낙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삶의 기준과 도덕적 근거를 형성해준 생득의 유대성과 박학한 지성을 바탕으로 작품에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The Dean's December*에서 Bellow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과 mass media의 위협이다. Bellow는 이 작품에서 mass communication과 미국 사회의 변형(transformation)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media의 부정적 역할은 문화의 후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mass media가 제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 문화는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그 어느것

28) Alfred Kazin, “My Friend Saul Bellow,” *Atlantic Monthly* CXXV (Jan. 1965), p.52.

29) Jack Ludwig, *Recent American Novelists* (Minneapolis, 1962), p.9.

30) 김중운, 「현대미국소설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p.95.

31) Saul Bellow, “The Nobel Lecture,” *American Scholar* 46, 1976-7, p.321.

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중사회에서 떠 다니기 마련이다. 그 필연적인 결과는 폭력과 소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아의 부정으로 나타난다. 미국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이 가장 음산하게 대중사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도시의 혼란함, 무분별한 폭력, 도시로부터 소외된 도시인들 그리고 인간관계의 단절 등의 뿌리는 전반적인 문화의 실패에 있다. Corde는 media를 교묘히 이용하여 자신과의 논쟁에서 자신을 매도하는 Dewey Spangler를 보면서, 한사람의 지성으로서 그의 한계와 기능, 그리고 심각한 위기에 처한 문화를 실감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개인의 미덕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함으로써 문화 회복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Corde 혼자서 Spangler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의 파괴적인 힘에 대항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그 논쟁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발견해 낸다. 그 자유는 소모적인 논쟁에 몰입하기 보다는, 초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를 바탕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없다"(there is no limit to what an individual can do)라는 신념을 잃지 않는한, 진정한 '문화'는 사라지지 않는다. 즉, 인간의 가치를 유지시켜 나가고자 하는 참된 개인이 있는 한, 문화 존속의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들의 역할은 대중문화에 의해서 생성된 복잡한 사회현상과 거대한 파괴적 힘 앞에서는 극히 경미할 뿐이지만, 이를 통해 Bellow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생각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으며, 느낄 수 있다. 보다 순수하고, 보다 미묘하며, 보다 고급한 행위들은 아직 분노나 무의미한 짓거리애 굴복하지 않았다"(We are still able to think, to discriminate, and to feel. The purer, subtler, higher activities have not succumbed to fury or to nonsense.)³²⁾라는 강한 의지인 것이다.

32) Bellow, p.321.

Works Cited

- Saul Bellow, *The Dean's December*. New York: Harper & Row. 1982.
- Arnold, Matthew. *Culture and Anarchy*. ed., Dover Wil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Gasset, Jose Ortega Y. *The Revolt of the Masses*. New York: Norton, 1930.
- Leavis, F.R. & Denys Thompson. *Culture and Environment*. London: Chatto & Windus. 1933.
- Macdonald, Dwight. *Against The American Grain*. New York: Vintage Book. 1952.
- 김성곤. 『포스트모던 시대의 작가들』 민음사. 1992.
- 김종운. 『현대미국소설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Articles

- Alter, Robert. *After the Tradition: Essay on Modern Jewish Writing*. New York: Dutton, Co. 1969.
- Bellow, Saul. "The Nobel Lecture," *American Scholar* 46(1976-7).
- . "Starting Out in Chicago," *The American Scholar* 44. 1974.
- Bennet, Tony. "Popular Culture: A Teaching Object," *Popular Culture: Themes and Issues 1*. Milton Keynes: Open Univ. Press. 1976.
- Bruckner, D.J.R. "A Candid Talk with Saul Bellow," *New York Times Magazine*, 15 April, 1984.
- Clemons, Walter. "Bellow the Word King," *Newsweek* VI. Jan 1976.
- Harper, Gordon Lloyd "Saul Bellow: An Interview" in *Saul Bellow: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Earl Rovit.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Inc. 1975.
- Kazin, Alfred, "The World of Saul Bellow," *Contemporaries*. Boston: Little, Brown, 1956.
- Kennedy, Eugene. "A Different Saul Bellow," *Boston Globe Magazine*. Jan 10, 1982.
- Leavis, F.R. "Mass Civilization and Minority Culture." *Education and the University*. London: Chatto & Windus, 1943.
- Rosenberg, Bernard. "Mass Culture in America," *Mass Culture: the popular arts in America*. ed. Bernard Rosenberg & David Manning White. New York: Macmillan. 1957
- Roudane, Matthew. C. "A Cri de Coeur: The Inner Reality of Saul Bellow's The Dean's December," *Studies in The Humanities*. 11:2, Dec. 1984.

Abstract

Cognition and Acceptance of Public Culture in Saul Bellow

Park, Yu-cheol

Saul Bellow's *The Dean's December* depicts the future of American culture most darkly throughout his entire works. Corde, former journalist and now a professor in the University, sees the indifferences and self-denials flourishing in the city, Chicago. They don't care their urgent social problems. And even intellectuals and mass media take undue advantage of the flow of this social status. As a conscientious intellect who recognizes the serious of social situations Corde can't help struggling with the philistine intellectuals and forceful mass media. but they are too strong for this lonely intellect. Even though he was defeated, he does not give up the hope for recovering the society. The first step he could take is throwing up the exhausting intellectual debates against them. The recognizes that the debates are useless, and by giving up the useless debates he has his mind released. The rest is up to the masses. As long as there are individuals who truly care for the society and its people, the culture of this society can expect the vision of renewal.